**대성당과 시장**

**Eric Steven Raymond**

**Copyright**: Permission is granted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is document under the terms of the Open Publication License, version 2.0.

**요약**

나는 의도적으로 리눅스의 역사로부터 제안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놀라운 이론의 테스트로서 성공적인 Fetchmail[[1]](#footnote-1) 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이러한 이론들을 두개의 기본적 개발 스타일 차이, 즉 대부분 상업적 세계의 “대성당” 모델과 리눅스 세계의 “시장” 모델에 관해서 논했다. 두가지 모델은 소프트웨어 디버깅 작업 유형에 관하여 대립하는 추정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충분한 눈들이 주어지면, 모든 버그들은 나온다.”라는 제의를 위한 리눅스 경험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만들었고 다른 이기적인 작용제의 자가 정정 시스템과 함께 생산적인 유추를 제안했으며 미래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통찰력에 관한 결과의 탐구로 마무리 지었다.

**목차**

대성당과 시장

메일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욕심 많은 유저들의 중요성

일찍 배포하고 자주 배포하라.

얼마나 많은 눈들이 복잡성을 극복했는가?

장미가 장미가 아닐 때.

Popclient becomes Fetchmail

Fetchmail의 성장

Fetchamil로부터 더 많은 교훈들

Necessary Preconditions for the Bazaar Style

The Social Context of Open-Source Software

1. https://en.wikipedia.org/wiki/Fetchmail [↑](#footnote-ref-1)